

## 학회와 나

안 광 덕 (KIST 고분자연구부)

1976년에 창립된 고분자학회가 벌써 20세의 나이를 먹어 이렇게 훌륭한 학회로 자라났다니.... 여러 사람이 고분자학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아직도 학회의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겠지만 나 자신도 그 중의 한사람에 끼일 수 있지 않을까하여 이렇게 글을 적어 본다. 1976년은 나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의 청춘기였는데 어느새 고분자학회의 연륜만큼이나 나 자신도 청춘을 보내고 중장년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 보라.

지금도 봄, 가을 고분자학회시에는 개최 대학의 학생들이 학회의 원활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 역시 1976년 가을 고분자학회 창립총회가 열리는 당시 홍릉 소재 한국과학원 2호관 대 강의실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캠퍼스) 앞에서 비슷한 일을 한 경험자이다. 고분자학회장을 역임하신 KAIST 조의환 교수의 제1회 졸업생인 본인은 1976년 10월 8일 고분자학회 창립총회시에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학회 개최 준비의 실무담당자라고 할까.... 회기동 경희대 앞에 가서 총회장에 걸 현수막을 만들고, 접수대에서 석사과정 재학생들과 같이 접수일을 보았다. 여기 보이는 귀중한 한 장의 사진이 당시 접수대에서 일하던 후배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현재는 모두 훌륭한 고분자 학자가 되어 산학연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고분자학회와의 관계가 조의환 교수가 초대 편집간사로 담당하신 학회지 “폴리머”의 편집과 발간에 초창기부터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출판사인 보진재 (普晉齋) 인쇄소까지 찾아가서 출판에 실무적인 학회지 제명과 논문 제목의 훗수, 원고 편집과 그림의 위치, 아직도 어려운 기술 뉴스란 작성, 기사의 보충 등에 직접적으로, 그야말로 몸으로 때워야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춘계총회 (KIST, 1977년 5월 6, 7일)가 열리기 전인 1977년 3월에 폴리머 제1권 제1호가 출간되었다. 본인이 고분자학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에서도 특별히 학회지의 전체 모양과 편집된 글의 모양에 더욱 관심을 쏟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다. 그 이후에도 1987-88년의 2년간에는 서강대 이후성교수와 같이 편집간사를 역임하였으며 지금도 학회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과학원에서 1979년 봄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물론 고분자학회의 일에 관련되었고 학회에서 논문발표 및 특강발표 기회도 여러 번 있었으니 고분자학회의 연륜과 발전에 따라 나의 경력도 늘어났다고 할까.... 지금은 규모가 크게 성장한 고분자학회이지만 봄, 가을 학회 참석시에 마음이 설레고 괜히 등록 접수대 앞을 서성이며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나만의 “학회사랑”이라고 치부하고 싶다. 고분자학회 창립 이래로 아마도 학회의 간사 담당 기간이 가장 긴 회원으로 기록될 정도로 학회의 일에 참여할 기회가 본인에게 주어져서 고맙고 또한 부족하고 미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고분자학회 창립총회 접수대  
(1976. 10. 8, 서울 홍릉, 한국과학원)

사진좌로부터 정광춘((주)잉크텍),  
김진백(KAIST), 본인, 김청수(수산중공업),  
박찬언(포항공대), 조의환(KAIST),  
안중호(세계원자력기구),  
뒤줄우측으로부터 장석규(중앙대), 강용수(KIST).